

『新撰字鏡』 문헌인용 양상 고찰 — 『玄應音義』를 중심으로

金玲敬* · 吳一鳴(中)**

【목 차】

1. 들어가기
2. 표제자 선정에서의 인용 양상
3. 석문에서의 인용 분석
4. 나가기

【초록】

본 논문은 『玄應音義』를 중심으로 『新撰字鏡』의 문헌 인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字鏡』의 『玄應音義』 인용 양상을 보면, 표제자의 선정, 표제자 표음, 자의 및 예증, 이체자 정보 등 내용 구성면에서 폭넓게 『玄應音義』를 활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玄應音義』만으로, 때로는 『玉篇』이나 『切韻』 등 다른 문헌의 정보를 활용해 『玄應音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사서로서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였다. 그러나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아 문헌 인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나, 체제가 엄정하지 못하고 오류가 많다는 것은 이 책이 가진 한계이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정확한 문헌 인용 관계 연구와 석문의 교감을 통해 이 책이 가진 한자학·문헌학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新撰字鏡』, 『玄應音義』, 일본 자서, 인용연구, 인용 양상

* 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文新學院 教授 (jadeling72@163.com)

** 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文新學院 助教 (wlming@foxmail.com)

1. 들어가기

『新撰字鏡』¹⁾은 平安 시대 昌泰 연간(898-901) 일본 승려 쇼주에 의해 찬술된 일본의 고사서이다. 필자는 문자학자로서 이 책이 가지는 字樣學 가치에 매료되어 자형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교감 연구를 했었다. 하지만 『字鏡』 석문의 오류는 비단 자형의 와면이나 오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기에 자형 연구와 더불어 인용 원문과의 대조를 통한 정교한 교감도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아래의 『字鏡』 서에는 몇 가지 저본이 언급되어 있다.

……搔首之間，歎漚之頃，僅求獲也『一切經音義』一帙廿五卷。雖每論字，音訓頗覺得；……以寬平四年夏，草案已畢，號曰『新撰字鏡』，勒成一部，頗察泰然，分為三軸。自爾以後，筆幹不捨，[尚隨見得，拾]集無輟。因以昌泰年中問得『玉篇』及『切韻』，拈加私記，脫泄之字，更增花麗。亦復『小學篇』之字及『本草』之文。雖非字字之數內，等閑撰入也。調聲之美，勘附改張，乃成十二卷也。……或字有異形同字，崧嵩流汴《坤憐伶叁予余姦姦翻》如是巨多，見『正名要錄』。……

위의 서에 따르면 이 책을 짓는 과정에서 표제자의 선정과 석문의 내용 구성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은 『玄應音義』·『玉篇』·『切韻』·『小學篇』·『本草』 등이고, 비록 서에는 없지만 『干祿字書』도 주요 저본이었으며, 『正名要錄』은 이체자를 구분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특히 집필부터 3권 본의 초고 완성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玄應音義』였고, 더 많은 표제자를 수록하고 음운정보를 정비하여 12권까지 증보할 수 있게 한 것은 『玉篇』과 『切韻』 같은 자·운서였다. 그러므로 『字鏡』의 문헌 인용 연구는 이 세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증보하는 데에 주요한 저본이 되었던 『玉篇』과 『切韻』은 실상 『玄應音義』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여기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玉篇』과 『切韻』은 온전한 판본이 전하지 않아 인용 관계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필자는 그간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玉篇』과 『玄應音義』 사이의 유사성을 다소 발견하였고, 『玄應音義』야 말로 『玉篇』과 『字鏡』 사이의 사라진 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임을 알게 되었다. 또 『玄應音義』는 『字鏡』 초고 편찬 과정의 가장 주요한 저본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인용 관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문헌이므로 여기에서부터 인용 관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이후 모두 『字鏡』으로 칭한다.

2. 표제자 선정에서의 인용 양상

상술한 바와 같이 현전하는 『字鏡』은 『玄應音義』를 바탕으로 초고가 완성된 후 『玉篇』과 『切韻』 같은 소학류 문헌을 비롯하여 『小學篇』, 『本草』 등 기타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여 증보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 문헌 서명과 출처를 거의 밝히지 않아서 각 표제자와 석문의 인용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字鏡』이 표제자의 선정과 석문 내용 구성 등에서 『玄應音義』를 적잖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훗카이도 대학이 구축한 “헤이안 시대 한자 자서 종합 데이터베이스(平安時代漢字字書綜合データベース)”²⁾에 의하면 전체 24,263개 표제자 중 1919개의 글자가 『玄應音義』에서 나왔다. 『玄應音義』계 표제자의 비율이 7.8%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³⁾

『玄應音義』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佛典에 나오는 어휘를 풀이한 類書이므로, 모든 표제항은 두 글자 이상의 한자어인데, 쇼주는 여기에서 어렵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자들을 가려 뽑았다. 원래 하나였던 어휘에서 한 글자를 독립시켜 표제자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玄應音義』와는 다른 체제가 필요하였으므로, 자형의 정속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이체자는 서로 연이어 배치하는 자양서-구체적으로는 『干祿字書』와 『正名要錄』-의 원칙을 빌어 표제자를 배열하고⁴⁾ 음운정보와 자의 및 예증 등을 인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玄應音義』에서 뽑아낸 한자를 표제자로 선정한 예를 분석하여 그 인용 양상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1) 『玄應音義』 어휘의 부분 한자를 표제자로 선정

『玄應音義』에 나오는 어휘들은 대부분 두 글자 이상이지만, 나머지 한 글자가

2) 北海道大學, 平安時代漢字字書綜合データベース, <http://hdid.jp>

3) 『字鏡』의 초고가 『玄應音義』를 뿌리로 한 것에 비춰보면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니다. 이는 『玉篇』과 『切韻』이 입수된 후 9권 분량만큼 더 많은 글자가 증보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강서성 고등교육기관 인문사회과학 연구과제-『新撰字鏡』 문헌 인용 연구 및 인문 교감(江西省高校人文社會科學研究項目-『新撰字鏡』引書研究及引文校考)” 과제가 완료되어 『新撰字鏡』 문헌 인용의 전모가 밝혀지면, 非 『玄應音義』계 표제자의 석문에서의 『玄應音義』 인용 양상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이 책이 『字鏡』의 저술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필자의 연구는 아직 12권 모두를 아우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나온 문헌 인용 통계 중 가장 완비된 북해도 대학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玄應音義』에서 나왔음이 증명된 표제자를 바탕으로 『玄應音義』 인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4) 『字鏡』의 표제자 배열 양상과 표제자 간의 자형 관계에 관한 것은 필자의 졸고 「『新撰字鏡』註釋體例研究-漢字 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中國學』, 제45집, 2013.08, pp.35-52) 참조.

“火”나 “爲” 자처럼 이미 출현하여 중복으로 수록할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글자일 때는 그 어휘의 구조를 깨트려서 필요한 글자만 표제자로 채택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玄應音義卷第20·佛本行讚經·第2卷』:火燭, 翼尚反. 燭, 炙也. 『方言』:江東呼火熾猛爲燭. 『說文』:炙燥也. 『廣雅』:燭, 熱也.⁵⁾

『新撰字鏡·火部』:燭, 翼尚反. 炙也. 熾猛爲燭. 炙燥. 燭, 熱也.⁶⁾⁷⁾

위의 예문은 『佛本行讚經』의 “火燭”조에서 “火”는 제외하고 나머지 “燭”을 가져와 표제자로 삼은 것이다. “翼尚反”과 같은 음운정보와 자의 및 예증 등의 정보를 『方言』이나 『說文』, 『廣雅』같은 출처를 제외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인용하였다.

『玄應音義卷第12·賢愚經·第4卷』:爲臠, 呼各反. 『說文』:肉羹也. 謂有菜曰羹, 無菜曰臠也.⁸⁾⁹⁾

『新撰字鏡·肉部』:臠, 呼外[各]¹⁰⁾反. 肉羹也. 有菜曰羹, 無菜曰臠.¹¹⁾

“臠” 역시 『賢愚經』의 “爲臠”에서 “臠”만 표제자로 선정한 것이다. “呼外[各]反”¹²⁾이라는 반절과 의미항 “肉羹也”는 모두 『玄應音義』를 인용하였다. 『玄應音義』 역시 『說文』과 『楚辭』의 王逸의 주석을 인용하였으며, 『字鏡』도 이를 재인용 하였다.¹³⁾

『玄應音義卷第22·瑜伽師地論·第26卷』:“肋骨, 力得反. 『說文』:肋, 脅骨也. 字從肉. 或作勒, 非體也.”¹⁴⁾

『新撰字鏡·肉部』:肋, 力得反. 脅骨也. 作勒者, 非.¹⁵⁾

5) 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59.

6)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京都: 臨川書店, 平成11年, p.52.

7) 『字鏡』이 『玄應音義』를 그대로 연용한 것은 굵고 진한 글씨로 표시한다. 이후 지면 관계와 논술의 맥락 유지 때문에 언급되지 못한 인용 양상은 모두 표시된 기호를 참고하길 바란다.

8) 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09.

9) 『字鏡』이 『玄應音義』의 풀이를 변형한 것은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10) []기호 안의 글자는 『字鏡』의 오자나 동형자를 교감한 것이다. 이하 동일.

11)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京都: 臨川書店, 平成11年, p.34.

12) 陸法言의 S.2071『切韻』殘卷에는 이 글자가 “入聲·沃韻”에 속해있다. 따라서 “疑母泰韻”자인 “外”가 반절 하자가 될 수 없으며, “各”을 잘못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切韻·入聲·沃韻』: “臠, 熱. 火酷反. 二. 臠, 羹. 又呵各反.”(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7]).

13) 『說文』:“臠, 肉羹也. 从肉隹聲. 呼各切.”(www.zdic.net/hans/%E8%87%9B [20201107]); 『玄應音義卷第1·大集日藏分經·第六卷』:“得臠, 呼各反. 王逸注『楚辭』云: 有菜曰羹, 無菜曰臠.”(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9).

14) 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714.

15)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4.

“肋”은 『玄應音義』에서 “肋骨”(『瑜伽師地論』, 『摩訶般若波羅蜜經』), “脅肋”(『四分律』), “髀肋”(『十誦律』)등의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데, 반절과 석문의 내용 및 구성을 비교해 보면 『瑜伽師地論』의 “肋骨” 조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玄應音義』卷第15·五分律·第8卷:“胆弊, 千余反. 謂胆妬也. 蠅子曰胆.¹⁶⁾

『新撰字鏡』·日部:胆[胆], 千余反. 謂妬也. 蠅子曰胆. 從肉部.¹⁷⁾

“胆”은 “胆”의 이체자이다. 『五分律』의 “胆弊”에서 “胆”만 표제자로 수록하고, 음운 정보-“千余反”-와 자의-謂妬也. 蠅子曰胆-를 모두 『玄應音義』에서 인용하였다. “謂妬也”은 『玄應音義』의 “謂胆妬也”를 줄여 쓴 것이다. 『字鏡』은 표제자가 석문중에 나올 때 이를 생략하면서도 중문부호를 잘 쓰지 않는데, 이는 정확한 자의 전달이나 예증에 저해요소가 된다.

2) 『玄應音義』 어휘를 나누어 각각 표제자로 선정

『字鏡』은 어떠한 『玄應音義』 어휘를 표제자로 수록할 때 한 어휘를 나누어 각각 표제자로 설정하는 예가 많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玄應音義』卷第21·大菩薩藏經·第1卷:“憺怕, 徒濫反, 下普白反. 『說文』:憺, 安也. 憺然, 安樂也. 怕, 靜也, 謂恬然寂靜也. 憺怕, 无爲自持也.¹⁸⁾

『新撰字鏡』·心部:憺, 徒濫反. 安也. 豆也. 怕, 芳霸反. 靜也, 无為也, 怖也. ¹⁹⁾²⁰⁾

“憺”과 “怕”은 『玄應音義』의 『大菩薩藏經』에 나오는 어휘인 “憺怕”를 한 자씩 표제자로 세운 것이다. 『字鏡』은 먼저 “憺”자 관련 석문에서 “徒濫反”이라는 음운정보와 『說文』에서 비롯한 “安也”라는 자의만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怕”자의 석문에서는 『玄應音義』의 음운정보인 “普白反” 대신에 “芳霸反”으로 자음을 표시했는데, 이는 『切韻』의 “芳霸反”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²¹⁾ 또 “靜也, 謂恬然寂靜也”에서 “靜也”에

16)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531.

17)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43.

18)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76.

19)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69.

20) 『玄應音義』의 타 불전이나 다른 자서 혹 운서의 것을 가져와 보충한 것은 “ ” 기호로 표시.

21) 王仁昉, P.2011『刊謬補缺切韻』:“𢇛, 芳霸反. 𢇛襍. 二. 怕, 怖.”(<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7]). 이후 P.2011『刊謬補缺切韻』는 모두 『王一』로 칭한다.

대한 설명 부분은 생략해버리고 주요한 자의만 인용하였다. “憺怕”라는 어휘를 각각의 표제자로 독립시키는 바람에 “憺怕”가 가지는 “无爲自持也”라는 의미는 생략하고, 다른 佛典에서 “無爲也”²²⁾라는 자의를 보충하였다. 또 “怖也”라는 자의는 『王一』에 수록된 석문에 따르면 『切韻』에서 가져온 것이다.

『玄應音義』卷第24·阿毗達磨俱舍論·第11卷:“稼穡, 加暇反, 下所力反. 『字林』:種曰稼, 收曰穡. 『說文』:禾之秀實曰稼. 一曰在野曰稼.”²³⁾

『新撰字鏡·禾部』:稼, 加暇反. 去:種也. 稿穡[穡], 二同. 所力反. 入. 儉也. 種曰稼, 收曰穡. 禾之秀實爲稼, 一曰在野曰稼.²⁴⁾

“稼”와 “稿”·“穡”은 『阿毗達磨俱舍論』의 “稼穡”²⁵⁾조에서 “稼”와 “穡”을 각각 표제자로 선정하고 형음의 정보 등을 인용한 것이다. 『字鏡』 “稼”자 조의 석문에는 『玄應音義』에 없는 “種也”라는 의미항이 더해 졌는데, 이는 『切韻』²⁶⁾이나 『玄應音義』 “穡”의 석문에 나오는 『字林』의 “種曰稼”라는 풀이를 변형시켜 보충한 것이다. “穡”자에 “儉也”라는 의미항이 더해진 것은 유가 경전의 주석에서 “斂”을 “儉”²⁷⁾으로 풀이하기도 한 것을 반영한 것인데, 쇼주가 『玉篇』이나 『切韻』 등의 소학 류 문헌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 전해진 『春秋左氏傳』의 주석에 근거해 이러한 의미항을 보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²⁸⁾

3) 『玄應音義』 어휘를 그대로 표제자로 선정

22) 『玄應音義』卷第6·妙法蓮華經·第3卷:“憺怕, 『字書』或作倓, 同. 徒濫反. 『說文』:憺, 安也. 謂憺然安樂也. 憺亦恬靜也. 經文作倓, 徒甘反. 『說文』:倓, 憂也. 倓非此義. 怕, 又作泊. 『說文』:匹白反. 無爲也. 『廣雅』:怕, 靜也.”(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p.243)

23) 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770.

24)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464.

25) “稼穡”은 『阿毗達磨俱舍論·第11卷』, 『舍利弗阿毗曇論·第19卷』, 『對法論·第7卷』 등에도 나오는데, 수록한 불전과 권차는 달라도 모두 『阿毗達磨俱舍論』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26) 王仁昉, 『王一·去聲·禡韻』:“稼, 布種.”(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14])

27) 阮元, 『經籍纂詁·卷10』:“穡, 儉也. 【左氏僖廿一年傳】務穡注.”(www.guoxuedashi.com/zidian/jjzg_11457p.html [20201010]).

28) 『字鏡』은 인용한 문헌을 밝히지 않으므로 “儉也”라는 의미항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玉篇』이나 『切韻』 등에서 온 것은 아니다. 『唐韻』에서는 “穡, 稼穡. 種曰稼, 斂曰穡.”으로, 『篆隸萬象名疑』에서는 “穡, 所棘反. 斂曰穡也.”로, 『宋本玉篇·禾部』에는 “穡, 所力切. 斂曰穡.”으로 풀이하는 등 “儉也”라는 의미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左傳·僖二十一年』의 “臧文仲曰:非旱備也. 脩城郭, 貶食, 省用, 務穡, 勸分, 此其務也.”의 주에는 “穡, 儉也.”로 주석되었고, 『疏』에 “穡是愛惜之義, 故爲儉.”이라고 설명돼 있으므로 쇼주가 『字鏡』을 찬술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字鏡』은 또 『玄應音義』의 어휘를 그대로 표제항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玄應音義』의 석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節錄하거나 변형하여 옮기고 있다.

『玄應音義卷第7·阿差末經·第4卷』: 侏儻, 宜作譱張. 又作譱、嘯、侏三形, 同. 竹尤反. 譱張, 誑也, 謂相欺惑也. 經文作侏, 音朱, 侏儒也. 下儻, 救良反. 儻, 狂也. 並非字體.²⁹⁾

『新撰字鏡·人部』: 侏儻, 宜作譱張. 亦作譱嘯侏三形. 譱張, 狂(誑)也, 謂相欺惑也. 儻, 勅良反. 平. 侏, 竹尤反.³⁰⁾

“侏儻”은 『阿差末經』의 “侏儻”조의 어휘를 그대로 표제자로 삼았으며, “侏”의 아래에 놓여있던 반절 “竹尤反”을 맨 뒤에 배치하는 등 내용 구성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侏儻”을 “譱張”으로 써야 한다는 점·“譱”의 세 이체자·“譱張”(즉, “侏儻”)의 뜻·“侏”의 반절·“儻”의 표음 정보 등 “侏儻”의 형음의 관련 내용을 충실히 인용하였다.

『玄應音義卷第13·僧護因緣經』: 僂僂, 又作𪔐, 同. 亡忍反, 下無辯反. 謂自強爲之也.³¹⁾

『新撰字鏡·人部』: 僂僂, 上, 忘忍反, 下, 無辯反. 亦作𪔐[𪔐]. 低頭也. 須也. 二合謂自強爲之也.³²⁾

“僂僂”은 『僧護因緣經』의 “僂僂”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字鏡』은 “僂”자의 반절 상자를 “忘”으로, “僂”의 반절 하자를 “辨”으로 고쳐버렸고³³⁾, 『賢愚經』의 “僂仰”조에 설명된 “低頭也”라는 의미항을 가져와 자의를 보충하였다.³⁴⁾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亦作𪔐[𪔐]”이다. 일반적으로 “亦作某”는 이체자를 제시할 때 쓰는 형식인데, 『集韻』에 따르면 “𪔐”은 “晚”의 이체자로 “晚賢”이라는 연면사로 쓰여 “目視兒”를 뜻하므로³⁵⁾, 자형과 자의 면에서 모두 “僂”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쇼주가 이 부분을 넣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僂”은 “俯”로 읽힐 때 “頻”의 이체자로도 쓰이며³⁶⁾, 『爾雅·釋詁』에서는 “頻”가 “視也”를 뜻한다

29)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272.

30)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65.

31)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40.

32)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64.

33) “忘”은 “微母漾韻”자이고, “亡”은 “微母陽韻”자로 성모의 음가가 같으므로 호환할 수 있으며, “辨”과 “辯” 역시 둘 다 “並母獮韻”자로 동음자이므로 호환될 수 있다.

34) 『玄應音義卷第12·賢愚經·第3卷』: “僂仰, 無辯反. 僂, 低頭也. 言閑默不已也.”(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08).

35) 丁度 『集韻·卷五』에서는 “晚, 武簡切. 『說文』: 晚賢, 目視兒. 或書作𪔐.”(<https://ctext.org/wiki.pl?if=gb&res=937344&searchu=%E7%9D%8C> [20201120]); 『宋本玉篇·目部』: “𪔐, 亡限切. 晚賢, 目視兒.”(顧野王, 『宋本玉篇』, 北京市中國書店, 1983, p.83).

36) 顧野王, 『宋本玉篇·人部』: “僂, 舞辯切. 俯僂也. 『說文』: 音俯. 低頭也. 亦作頻.”(北京市中國書店, 1

고도 하였다.³⁷⁾ 郭璞의 주에 따르면 이 “視也”는 “察視”를 뜻한다. 그러므로 “亦作𧈧[𧈧]”은 “𧈧을 𧈧으로도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𧈧이 𧈧과 유사한 자의를 가진다”로 봐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𧈧”과 “𧈧”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𧈧”의 이체자인 “𧈧”과 “𧈧”은 유의자가 되고, 쇼주는 이를 근거로 “𧈧”을 석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즉 “𧈧”의 “察視의 의미를 띤 보다”와 “目視兒”, 혹은 『廣韻』에서 말한 “無畏視”³⁸⁾를 의미하는 “𧈧”의 “보다”가 **다 같은 보는 동작은 아니지만 “보다”라는 공통의 의미요소가 있으므로** 동의자로 보고 석문에 넣은 것이다. 이처럼 『字鏡』은 표제자의 동의자나 유의자 등도 직접적인 의미향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예증도 없이 수록하곤 하므로 세밀한 분석과 정확한 예증이 필요하다.

4) 『玄應音義』 석문중의 이체자나 통용자를 표제자로 선정

『字鏡』은 『玄應音義』의 석문중에 제시된 이체자를 표제자로 독립시키고 원래 속해 있던 어휘 구성자와 동일한 지위의 표제자로 설정하거나, 인접하여 배열한 후 “同”·“同作”·“上字”·“上古文”·“上同作” 등 다양한 술어로 글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첫째, “同”으로 이체자 관계를 밝힌다.

『玄應音義卷第7·文殊師利現寶藏經·上卷』: 驥驥, 渠基反, 下又作驥, 同. 居致反. 『說文』: 馬有青驥, 文似綦也. 驥, 千里馬也, 孫陽所相者也. 赤驥也.³⁹⁾

『新撰字鏡·馬部』: 驥驥, 同. 几利反. 去. 驥也.⁴⁰⁾

“驥”와 “驥”는 이체자 관계에 있는 글자로, 원래 『文殊師利現寶藏經』의 “驥驥” 조 석문 속에서 이체자-“아래 글자(즉 驥)는 驥로도 쓴다(下又作驥)”-로 설명된 “驥”자를 표제자로 독립시키고, 正體字인 “驥”와 동일한 표제항에 수록하였다. “几利反”은 『王一』에서 인용했는데, 『王一』에서도 “驥”와 “驥”의 이체자 관계를 밝히고 있다.⁴¹⁾

둘째, “形同”으로 이체자 관계를 밝힌다.

983, p.55).

37) 郭璞·邢昺, 『爾雅注疏·卷二』: “監·瞻·臨·蒞·類·相, 視也.” 『注』: “皆謂察視也.” (<https://ctext.org/wiki.pl?if=gb&res=980574&searchu=%E7%9B%A3> [20201016]).

38) 陳彭年, 『廣韻·上聲·産·限』: “賢, 𧈧賢, 無畏視也.” (<https://ctext.org/dictionary.pl?if=gb&char=%E4%81%82> [20201006]).

39)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287.

40)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266.

41) 王仁昉, 『王一·去聲·至韻』: “冀, 几利反. 中州. 通俗作冀. 六. ……驥, 驥驥. 亦作驥.” (<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8]).

『玄應音義卷第1·大方廣佛華嚴經·第33卷』:眩惑, 古文⁴²⁾。洵二形, 同。侯遍反。『字林』:眩, 乱也。『漢書』:黎軒條支國善眩。案:眩亦幻也。軒音, 居言反。⁴²⁾
『新撰字鏡·目部』:眩, 侯遍反。去。惑也。乱也。幻也。闇也。目女久留。//洵洵, 二形同。胡滿反。平。⁴³⁾

“洵(洵)”과 “洵(洵)”은 『大方廣佛華嚴經』의 “眩惑”조 석문에 나오는 “眩”의 고문인 “洵”과 “洵”을 표제자로 독립시킨 것이다. “二形同”이라는 말로 이 두 글자가 이체자라고 설명하였으며, “眩”과 이 두 글자를 연이어 배치하여 세 글자가 이체자 관계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세 글자는 모두 별개의 글자이며 “眩”의 고문은 더욱 아니다. 『切韻』에서는 “洵”의 자의를 “狂”이라고 하였고, “洵”은 “出表詞”라고 하였다.⁴⁴⁾ 자음이 유사하지만 자의 상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 둘은 이체자가 아니다. “眩”자와의 관계에서도 두 글자를 “眩”의 고문으로 보기 힘들다. 徐時儀도 주에서 “洵洵이 眩의 고문이라고 한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⁴⁵⁾ 『字鏡』이 『玄應音義』에서 말한 고문이라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인용 원문의 잘못은 인식한 듯하지만 여전히 이 글자들을 “眩”과 연이어 두는 모습에서 『玄應音義』의 오류를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상의 인용 양상을 살펴보면, “乱也”와 “幻也”는 『大方廣佛華嚴經』의 석문을 그대로 혹은 축약해 인용한 것이고, “惑也”는 『瑜伽師地論』의 석문에서 왔으며⁴⁶⁾, “闇也”는 『大般涅槃經』의 “眠眩”조의 “亦闇不明也”를 줄여 인용한 것이다.⁴⁷⁾

셋째, “同作”으로 이체자 관계를 밝힌다.

『玄應音義卷第十·大莊嚴經論·第10卷』:昞著, 又作昞炳苒三形, 同。碧皿反。『廣雅』:昞, 明也。著, 顯也。⁴⁸⁾

『新撰字鏡·日部』:昞, 碧皿反。明也。//昞, 同作。亦作苒, 今作炳。⁴⁹⁾

42)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57.

43)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101.

44) 王仁昉, 『王一·去聲·霰韻·黃練反』:“洵, 狂。又相倫反。”『王一·去聲·霰韻·黃練反』:“洵, 出表詞。又思俊切。”(<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14]).

45) “孫曰:『說文』:洵, 鈞適也, 男女併也。非眩字義。『玉篇』云:洵, 狂也。又音縣, 與此同。『說文』又無洵。字見『玉篇』, 云:思俊切。出表詞也。此云眩古文, 未知何据。”(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57).

46) 『玄應音義卷第22·瑜伽師地論·卷15』:“目眩, 古文洵, 同。胡遍胡濁二反。『字林』:眩, 亂也, 惑也。『三蒼』:視不明也。”(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707)

47) 『玄應音義卷第2·大般涅槃經·卷2』:“眠眩, 『說文』作瞑, 同。亡見亡田二反。下侯遍胡濁二反。『廣雅』:眠眩, 惑亂也。亦闇不明也。經文作惛, 亡善反。惛, 勉也, 勸也。惛非此義。”(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96).

48)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354.

49)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25.

“𦉰”과 “𦉰”은 『大莊嚴經論』의 “𦉰著”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𦉰”의 이체자 정보인 “又作𦉰炳芮三形”에서 “𦉰”을 독립된 표제자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정보를 “亦作芮, 今作炳”으로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일반적인 자양서라면 이 두 글자를 한 표제항에 같이 배치했겠지만 『字鏡』은 이 둘을 독립시켜 연이어 배열하고, “碧皿反”이라는 음운정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廣雅』의 “明也”라는 의미항을 재인용한 후, “同作”이라는 술어로 “𦉰”이 “𦉰”의 이체자임을 설명하였다.⁵⁰⁾

넷째, “上字”로 이체자 관계를 밝힌다.

『玄應音義卷第19·佛本行集經·第34卷』:燒𦉰, 今作炳, 同. 而悅反. 『通俗文』:燃火曰炳, 炳亦燒也.⁵¹⁾

『新撰字鏡·火部』:𦉰, 而熱反. 燃火曰炳, 炳, 燒也. //炳, 上字.⁵²⁾

“燃火曰炳, 炳, 燒也”라는 의미 풀이를 근거로 찾아보면 “𦉰”과 “炳”은 『佛本行集經』의 “燒𦉰”조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玄應音義』에서 “炳”을 今文으로 “𦉰”을 古文으로 보는 것과 달리 『字鏡』은 단순히 “上字”라는 술어로 이 두 글자가 이체자 관계에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玄應音義』의 견해가 서로 부딪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³⁾ 이 두 글자가 서로의 이체자라는 것은 『宋本玉篇』이나 『王三』과 같은 『切韻』계 운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字鏡』의 처리 방식에는 무리가 없다.⁵⁴⁾

다섯째, “上古文”으로 이체자 관계를 밝힌다.

『玄應音義卷第14·四分律·第1卷』:飢饉, 古文飢, 又作饑, 同. 几治反. 『爾雅』:穀不熟爲

50) 𦉰과 𦉰의 이체자 관계는 『切韻』계 운서에도 드러난다. 王仁昫, 『刊謬補缺切韻(王三)·上聲·梗韻』:“𦉰, 光. 亦作𦉰、芮.”(<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8]). 이후 『刊謬補缺切韻(王三)』은 『王三』으로 칭한다.

51) 玄應撰, 徐時儀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32.

52)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2.

53) 『玄應音義卷第11·中阿含經·第12卷』에서는 “火炳, 古文𦉰, 同. 而悅反. 『通俗文』: 燃火曰炳, 炳亦燒也.”라고 하며, “炳”을 古字로, “𦉰”을 今字로 보고 있는 반면 『佛本行集經·第34卷』에서는 “𦉰”을 古字로 “炳”을 今字로 보고 있다. 『說文』에서 “𦉰, 燒也. 从火𦉰聲. 『春秋傳』曰: 𦉰僖負羈.”로 “𦉰(즉 𦉰)”자만 풀이하고 있고 “炳”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𦉰”자가 본자이고 “炳”이 후에 나타난 이체자로 보인다. 반면 『龍龕手鑑』에서는 “炳(즉 炳)”을 속자로, “𦉰”을 今字로 보았다. 行均, 『龍龕手鑑·艸部』: “炳𦉰, 二俗. 𦉰, 今. 如悅反. 燒𦉰也. 三.” (<http://yitizi.guoxuedashi.com/ytz.php?id=b02449> [20201108]).

54) 顧野王, 『宋本玉篇·火部』: “𦉰, 而悅切. 燒也. 炳, 同上.”(http://suzukish.s252.xrea.com/search/pianyun/search_top.php [20201108]); 『王三·入聲·薛韻』: “𦉰, 如雪反. 放火. 亦作炳. 二.”(<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8]).

飢, 蔬不熟爲饑. 李巡曰:可食之菜皆不熟爲饑. 『春秋穀梁傳』曰:二穀不升謂之飢, 三穀不升謂之饑, 五穀不升謂之大飢. 『說文』:飢, 餓也.⁵⁵⁾

『新撰字鏡·食部』:飢饑, 上:几治反. 穀不熟爲飢, 蔬不熟爲饑. 又穀不升謂之飢, 三穀不升謂之饑//飢饑, 三上古文.⁵⁶⁾

“飢”는 “飢饑”의 바로 아래에 연이어 배열되어 윗글자 “飢”의 고문임을 밝히고 있다. 인용 출처는 『四分律』의 “飢饑” 조이며, 『玄應音義』 석문중에 제시된 고문 “飢”와 다른 자서에서 찾아낸 “飢”⁵⁷⁾을 고문으로 간주하고 표제자로 독립시켜 배열하였다. “饑”는 연원을 알 수 없는 자형인데, 『玄應音義』와 『刊謬補缺切韻(王二)』에서 밝힌 이체자와의 자형 유사성에 근거해 보면 “饑”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⁵⁸⁾

여섯째, “上同作”으로 이체자(정자와 속자도 포함)나 통용 관계를 밝힌다.

『玄應音義卷第19·佛本行集經·第26卷』:鯨鵠, 又作鰐, 同. …… 『說文』作鵠, 司馬相如作鵠, 或作鵠, 『埤蒼』作鰐, 『字書』作鵠, 同. 五歷反. 水鳥也, 善高飛也.⁵⁹⁾

『新撰字鏡·鳥部』:鵠鵠, 同. 五盍反. 入. 水鳥. 佐支. //鵠鵠鵠, 三字上同作. 牛歷反. 入.⁶⁰⁾

“鵠·鵠·鵠” 세 글자는 “鵠”의 이체자로, 『佛本行集經』 “鯨鵠”조의 석문중의 이체자 정보 부분에서 제시된 글자를 모두 독립시켜 표제자로 삼은 후 정체자인 “鵠”과 연이어 배열한 것이다. 『龍龕手鑑』을 보면 “鵠”은 정자이고 “鵠”은 흑체, 鵠은 속자라고 하였으며⁶¹⁾, 『說文』에 따르면 “鵠”은 “鵠”의 흑체⁶²⁾로 역시 “鵠”의 이체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字鏡』의 표제자 선정과 배열, 풀이 모두 적절하다.

다음은 통용 관계를 밝힌 예이다. 『玄應音義』에서는 “經文作”·“經文多作” 등으로 불전에서의 한자 통용 양상을 설명했는데, 『字鏡』은 이를 표제자로 세우기도 하였다.

『玄應音義卷第6·妙法蓮華經·第1卷』:逮得, 徒戴反. 『爾雅』云:逮, 及也. 『方言』:自關之東

55)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138.

56)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p.235-236.

57) 行均, 『龍龕手鑑·食部』:“飢, 俗. 飢, 古. 飢, 正. 居脂反. 飢餓也. 餒也. 又姓. 三.” (<https://ctext.org/wiki.pl?if=gb&res=527363&searchu=%F0%A9%9A%AE> [20201020]).

58) 王仁昉, 『刊謬補缺切韻(王二)·上平聲·脂韻』:“飢, 居脂反. 二加二. 餓也. 又作饑.” (<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8]).

59)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29.

60)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481.

61) 行均, 『龍龕手鑑·鳥部』:“鵠, 俗. 鵠, 或. 鵠, 正. 水鳥野. ……” (<http://yitizi.guoxuedashi.com/ytz.php?i=d=b06141> [20201108]).

62) 許慎, 『說文·鳥部』:“鵠, 鳥也. 从鳥兒聲. …… 鵠, 司馬相如說. 鵠从赤. 鵠, 鵠或从鬲.” (<http://www.zdic.net/hans/%E9%B6%82> [20201108]).

西謂及曰逮. 經文多作逮. 『說文』:力足反. 行謹逮也. 亦人姓也. 逮非經音.

『玄應音義卷第13·大般涅槃經·第1卷』:逮得, 徒戴反. 『說文』:逮, 及也. 經文多誤作逮, 力屬反. 『說文』:逮, 謹也. 亦人姓也. 逮非經音.⁶³⁾

『新撰字鏡·辵部』:逮, 徒戴反. 及也, 遙也, 与也, 遁也, 衆也. //逮, 上同作. 雖然音訓別也. 力穀反.⁶⁴⁾

『字鏡』은 『妙法蓮華經』 혹은 『大般涅槃經』의 “逮得”조에서 언급된 “逮”와 “逮”의 통용 현상을 근거로 “逮”을 표제자로 선정하고 “逮”와 연이어 놓아 두 글자가 서로 통용⁶⁵⁾되는 글자임을 밝혔다.

3. 석문에서의 인용 분석

『字鏡』이 석문에서 『玄應音義』를 인용하는 가장 전방위적인 방식은 아래의 예처럼 『玄應音義』의 모든 석문 내용—즉 표제자와 음운정보, 자의 정보, 이체자 정보나 용자 현황 등—을 전부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字鏡』은 아래와 같이 『玄應音義』에 나오는 표제어휘 구성 한자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독립된 표제자로 삼고, 음운정보를 인용하여 각 표제자의 자음을 밝히고, 뜻풀이 및 예증을 실어 자의를 풀이한 후, 필요에 따라 표제자가 이체자나 경문에서 통용 혹은 오용되는 용자 상황 등도 인용하였다.

『玄應音義卷第14·四分律·第49卷』:捉脛, 古文脛, 同. 下定反. 『字林』:腳脛也. 『釋名』:云:脛, 莖也. 直而長似物莖也.

『玄應音義卷第18·雜阿毗曇心論·第8卷』:脛骨, 又作脛, 同. 下定反. 『說文』:脛, 腳脛也. 脛音下孟反. 今江南呼脛爲脛, 山東曰脛敵. 敵音丈孟反. 脛脛俱是膝下兩骨之名也. 『釋名』:脛, 莖也. 直而下如物莖也.⁶⁶⁾

『新撰字鏡·肉部』:脛, 下定反 去. 腳脛也. 脛字.⁶⁷⁾

『字鏡』은 필요에 따라 『玄應音義』 석문의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일부

63)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229, p.86.

64)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54.

65) “逮”와 “逮”은 별개의 글자인데, 자형이 유사하여 불건 및 문헌의 필사 등과 같은 비규범적인 용자 환경에서는 “逮”을 “逮”의 속자로 썼다. 『龍龜手鑑·辵部』:“逮逮逮, 三俗. 逮, 正. 徒愛反. 及也. 興也. 行及前也. ……” (http://yitizi.guoxuedashi.com/ytz.php?id=b05087 [20201108]).

66)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98, p.601.

67)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4.

분만 발췌하기도 한다. 위의 예는 『四分律』 혹은 『雜阿毗曇心論卷』에 나오는 어휘의 일부인 “脛”을 독립된 표제자로 삼고, 음운정보 “下定反”을 인용하여 표제자의 자음을 밝히고, 『玄應音義』에서 풀이한 “腳脛也”를 인용하여 자의를 풀이한 후, “脛이 古文脛”이라는 자형 정보를 바탕으로 “脛字”의 형식을 빌어 두 글자가 이체자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를 보면 설령 모든 내용을 다 인용해도 이를 그대로 연용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만 축약해서 인용하며, 더 나아가 석문의 구성을 나름대로 재구성하거나 문장을 고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字鏡』의 석문을 분석해 보면 『玄應音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문헌-즉 “篇韻”·유가 경전 및 주해-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음운정보 면에서는 다른 자·운서의 반절로 『玄應音義』를 대체하거나, “某某某某二反”·“某某某某某某三反”과 같은 형식으로 다른 자·운서의 음운정보와 병기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본어 한자음에 기초해 새로운 반절을 조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자·운서의 자의 및 예증을 폭넓게 수록하여 『字鏡』 내용 구성의 충실성과 사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썼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字鏡』이 석문 내용을 구성하면서 『玄應音義』와 다른 문헌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자 한다.

1) 자음의 표시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字鏡』의 음운정보는 생각보다 다원적이다. 『玄應音義』의 음운정보는 물론이요 다른 자·운서의 음운정보나 일본어 한자음의 음가에 근거한 새로운 반절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玄應音義』의 자음만 인용”한 사례, “다른 자·운서의 음운정보로 『玄應音義』를 대체”한 사례, “다른 자음 정보와 『玄應音義』 자음 정보의 결합” 사례로 나눠 그 양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玄應音義』의 자음만 인용

『字鏡』은 『玄應音義』 외에 『玉篇』과 『切韻』 등에서도 음운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필요에 따라 『玄應音義』의 음운정보와 “篇韻”의 것을 섞어서 자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玄應音義』에서 가져온 표제항은 우선 『玄應音義』의 음운정보를 채택하며, 아래의 예처럼 다른 음운정보를 전혀 신지 않는 예도 있다.

『玄應音義卷第3·小品般若經·第1卷』:糟粕, 籀文作醕, 同. 子勞反. 不霽酒也. 下普各反.
『淮南子』云:古人糟粕. 許叔重曰:糟, 酒滓已滌糟曰粕也. 霽音子禮反.⁶⁸⁾

『新撰字鏡·米部』:糟粕, 上, 亦作醪. 子勞反. 平. 不泚酒也. 下普各反. 糟也. 酒滓也. 二字訓同. 阿万加須.⁶⁹⁾

“糟粕”조는 오직 『玄應音義』에서만 음운정보 “子勞反”을 인용하였다. 그 외에 “糟”의 자의인 “不泚酒也”를 인용하면서 “泚”를 통용자인 “泚”⁷⁰⁾로 고쳐 적었다. “粕”자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玄應音義』의 “酒滓已澁糟曰粕也”에서 “술지게미(酒滓也)”라는 자의를 골라내고, “술지게미를 거르고 난 후의 ‘糟’를 ‘粕’이라고 한다는(酒滓已澁糟曰粕也)” 풀이를 “粕은 糟이며, 粕과 糟는 뜻이 같다”고 해석하고 이를 “糟也”와 “二字訓同”의 형태로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위의 예와는 달리 『玄應音義』의 음운정보를 인용하였지만, 아주 드물게 자의나 이체자 정보 등 기타 내용은 전혀 기술하지 않지 않은 것도 있다.

『玄應音義卷第23·顯揚聖教論·第1卷』:炎燎, 于廉反, 下力照反. 炎亦燒也.⁷¹⁾

『新撰字鏡·火部』:炎, 于廉反.⁷²⁾

“炎”자는 “于廉反”이라는 음운정보만 수록하고 있다. 사실 S.2071 陸法言의 『切韻殘卷⁷³⁾』에 “炎, 于廉反. 炎熱. 又餘念反.”으로, 『王一』에 “炎, 于廉反. 炎熱. 又餘念反.”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切韻』이 인용 출처일 수도 있으므로 인용 출처의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예는 『玄應音義』에서 음운정보만을 인용하고 자의나 예증은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玄應音義卷第8·維摩詰經·上卷』:榮冀, 爲明反. 榮猶光華也, 亦光寵也. 冀, 幸也.

『玄應音義卷第20·賓頭盧爲王說法經』:榮樂, 爲明反. 榮猶光華也. 光寵也. 經文作燦, 非也.⁷⁴⁾

『新撰字鏡·火部』:榮, 爲明反. 平. 屋翼. 比佐志也.⁷⁵⁾

“榮”자는 『維摩詰經』의 “榮冀”조 혹은 『賓頭盧爲王說法經』의 “榮樂”조에서 인용된

68)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137.

69)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242.

70) 『集韻·卷五』:“泚, 茜酒也. 通作泚.”(<https://ctext.org/wiki.pl?if=gb&res=937344&searchu=%E4%8D%A4> [20201119]).

71)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733.

72)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1.

73) 이후에는 『切三』로 한다.

74)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295, p.673

75)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1.

것이다. “為明反”이라는 음운정보만 인용한 뒤, “屋翼”과 “比佐志”라는 만요가나 화훈만 실었다. “屋翼”은 처마를 말한다. 『儀禮·士冠禮』의 “새벽에 일어나 관세기를 차려 정방 동쪽의 처마 아래에 둔다”라는 구절에 대해 鄭玄이 “榮은 屋翼(지붕날개, 즉 처마)이다”라고 풀이하였다.⁷⁶⁾ 그 외에 여러 경전에서도 “屋翼”으로 풀이⁷⁷⁾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풀이가 상당히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이며, 쇼주 또한 당시 일본으로 전해진 경전의 주석에서 이를 보고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比佐志”, 즉 현대 일본어의 “ひさし”는 한자어인 “屋翼”을 당시에 사용되던 만요가나를 써서 일본어로 옮긴 화훈이다.

(2) 다른 자·운서의 음운정보로 『玄應音義』를 대체

『字鏡』은 석문 내용을 구성할 때 음운정보는 다른 문헌에서 가져와 『玄應音義』의 것을 대체하고, 자의 및 예증은 『玄應音義』의 것을 활용하기도 한다.

『玄應音義卷第十三·五百弟子自說本起經』: 餽施, 古文槩, 同. 虛氣反. ……⁷⁸⁾

『王一·去聲·未韻』: 歛, 許既反. 歛歛. 十. …… 餽, 生餽. 亦作槩.⁷⁹⁾

『新撰字鏡·食部』: 餽, 許既反. 去. 槩古之作.⁸⁰⁾

“餽”는 『五百弟子自說本起經』의 석문에서 이체자 정보를 변형하여 인용한 예이다. 반절은 “許既反”으로 주음하고 있어 『玄應音義』의 반절인 “虛氣反”과 다르므로 다른 자·운서의 반절로 대체된 것이 분명하다. 우선 『玉篇』의 반절은 『玄應音義』와 같으므로⁸¹⁾ 여기에서 인용한 것은 아니다. 반면 『切韻』(『王一』)의 반절은 “許既反”으로 『字鏡』과 동일하므로, 『字鏡』이 『切韻』의 것으로 『玄應音義』의 반절을 대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玄應音義第17·迦旃延阿毗曇·第30卷』: 三滿, 又作僞、藕二形, 同. 五口反. 泉名也. 依

76) 賈公彥, 『儀禮註疏·士冠禮』: “夙興, 設洗, 直於東榮. 鄭玄註: “榮, 屋翼也.”(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151335&page=1 [20201118]).

77) 阮元, 『經籍纂詁·下平聲·八庚』: “榮, 屋翼也【儀禮士冠禮】直於東榮注【鄉射禮】東西當東榮注【特牲饋食禮記】東西當東榮注【鄉飲酒禮】東西當東榮注又【禮記喪大記】皆升自東榮注又【禮記鄉飲酒義】洗當東榮釋文.”(http://www.guoxuedashi.com/zidian/jjzg_3665h.html [20201108]).

78)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39.

79) 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15]

80)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236.

81) 顧野王, 『玉篇·食部』: “餽, 虛氣反. 『左氏傳』: 齊人饋之餽. 杜預曰: 生曰餽, 熟曰饗. ……”(『原本玉篇殘卷』, 中和書局, 2004.05. p.96).

字, 芙蓉根也.⁸²⁾

『新撰字鏡·水部』: 溝[溝], 藕藕二形. 居[吾]後反. 泉名也. 蓉根也.⁸³⁾

『字彙』에서 “溝”자는 “周宣王石鼓文에 보이며, 鄭은 溝이 곧 漫자”라고 하였으므로⁸⁴⁾, 『字鏡』의 석문과 맞지 않는다. 사실 “溝”자는 “溝”의 동형자로, “溝”에서 의미부 “艸”의 위치가 성부의 표음 자소인 “禺”의 위로 옮겨와 “萬”과 같은 형태로 변이되어 형성된 자형이다. 『字鏡』에서는 이 글자의 반절을 “居後反”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居”자는 “見母魚韻”자 이거나 “見母之韻”자 이므로 “疑母厚韻”자인 “溝”의 반절 상자로 쓸 수 없다. 『切三』에서는 이 글자를 “五口反”으로 주음하고 있어⁸⁵⁾, 반절 상자가 “居”자가 아니라는 추정을 뒷받침 해준다. 자형과 성모 음가의 유사성에 근거해 유추해보면 “吾”자를 잘못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830年 경에 나온 『篆隸萬象名疑』의 “藕”(“溝”의 이체자임)자 조에서는 이 글자의 반절을 “吾後反”로 쓰고 있어 “居”가 “吾”의 오류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 힘을 실어준다.⁸⁶⁾

『篆隸萬象名義』는 『字鏡』과 더불어 『原本玉篇』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사서로, 이 책이 『玄應音義』와 『切韻』 제본(즉, 『切三』·『王一』·『王二』·『王三』)과 달리 “吾後反”으로 주음하고 있으며 또 『字鏡』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은 이 반절이 『玉篇』을 계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字鏡』의 반절은 『玉篇』의 “吾後反”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졌으며, 『玉篇』의 반절로 『玄應音義』의 것을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3) 다른 자음 정보와 『玄應音義』 자음 정보의 결합

『字鏡』은 『玄應音義』의 자음을 인용한 후, 필요에 따라 다른 반절로 해당 한자의 자음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새로이 보충된 반절에는 “篇韻”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일본어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중국의 자·운서에 사용된 반절 상·하자와 음가가 동일한 한자들을 조합하여 새로 만들어 낸 것도 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82)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570.

83)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41.

84) 梅膺祚, 『字彙·水部』: “見周宣王石鼓文. 鄭云溝即漫字.”(<http://yitizi.guoxuedashi.com/ytz.php?id=c06489> [20201107]).

85) 陸法言, 『切三·上聲·厚韻』: “藕, 五口反. 三.”(<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8]).

86) 釋空海, 『篆隸萬象名疑·艸部』: “藕, 吾後反. 芙渠根也.”(<http://www.guoxuedashi.com/kangxi/pic.php?f=wxmy&p=691> [20201107]).

『玄應音義卷第12·義足經·上卷』:著洿, 一孤反。『字林』:濁水不流曰洿。謂行潦之水也。洿, 池也。『廣雅』:洿, 深也, 濁也。大曰潢, 小曰洿。⁸⁷⁾

『新撰字鏡·水部』:洿, 一孤哀都二反。平。濁水不流曰洿。大曰潢, 小曰洿。深也。濁也。煩繁也。⁸⁸⁾

위의 예는 『玄應音義』의 음운정보에 다른 문헌의 것을 더 보충한 예이다. 『字鏡』이 표명한 음운정보 “一孤哀都二反”에서 “一孤” 음은 『玄應音義』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哀都” 음은 『切韻』에서 인용해 보충한 것이다.⁸⁹⁾

『玄應音義卷第4·菩薩瓔珞經·第一卷』:塵噓, 又作壇, 同。於計反。『詩』:云:終風且噓。『爾雅』:陰而風曰噓。噓亦翳也, 言掩翳日光使不明也。⁹⁰⁾

『新撰字鏡·日部』:噓, 或作壇, 於計邑計二反。去。陰而風曰噓, 亦翳也。言掩翳日光使不明也。无光也。太奈久(毛)礼利, 又久留, 又久毛利天加世不久。⁹¹⁾

이것은 일본어 한자음에 근거해 새로이 반절을 조합해 보충한 예이다. “噓”는 『菩薩瓔珞經』의 “塵噓”에서 인용한 것인데, 음운정보 부분을 보면 『玄應音義』의 “於計反” 뿐만 아니라 “邑計”라는 반절도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 “於計反”은 『王一』과 『宋本玉篇』, 『宋本廣韻』 등에서도 쓰고 있는, 중국 운서의 체계 아래에서 조합된 것이지만⁹²⁾, “邑計”라는 반절은 『字鏡』이 저본으로 삼았을 법한 어느 자·운서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즉 “邑”의 일본어 독음인 “*yū*”가 “影母”에 “緝韻”자인 “邑”의 성모와 음가가 유사하고⁹³⁾, “影母”자인 “於”와도 음가가 비슷하므로 새로이 조합된 것이다.

『玄應音義卷第十四·四分律·第56卷』:股間, 古文股, 同。公戶反。『說文』:股, 髀也。『釋名』:云:股者, 固也, 爲強固也。⁹⁴⁾

87)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31.

88)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38.

89) 陸法言, 『切三·上平·模韻』:“烏, 哀都反。九. ……洿, 水不流.”(<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6]).

90)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159.

91)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25.

92) 王仁昉, 『王一·去聲·霽韻』:“翳, 於計反。羽葆. 一曰隱. 十三. 噓, 陰風.”(<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6]); 『宋本玉篇·日部』:“噓, 於計切. 陰而風.”(顧野王, 『宋本玉篇』, 北京市中國書店, 1983년, p.372); 陳彭年, 『廣韻·去聲·霽·翳』:“(於計切)噓, 陰風, 『詩』曰:終風且噓.”(<https://ctext.org/wiki.pl?if=gb&res=937344&searchu=%E6%9B%80> [20201106]).

93) 陸法言, S.2071 『切三·入聲·緝韻』:“邑, 英及反. 六.”(<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06]); 『廣韻·入聲·緝·邑』:“邑, 縣邑. 『周禮』曰:‘四井爲邑.’ 又漢複姓, 有邑由氏, 楚大夫養由氏之後, 避仇改焉. 於汲切. 八.”(<https://ctext.org/text.pl?node=316536&if=gb> [20201106]).

6].

『新撰字鏡·肉部』:股, 古文𩚑 公戸苦固二反. 上. 固也. 為強固也. 倭古於反. 字豆毛毛.⁹⁵⁾

“股”자 역시 “公戸”와 “苦固” 두 개의 반절을 수록하고 있다. “公戸”는 『玄應音義』에서 인용한 것이고, “苦固”는 일본어 한자음에 따라 재구한 반절이다. “苦”의 일본어 음가는 “<(ku)”로 “見母”자인 “公”과 청탁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음가라서 반절 상자로 채택되었으며, “固”의 일본어 음가는 “こ(ko)”로 “暮韻”자인 “固”의 운모와 음가가 비슷하여 반절 하자로 선정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쇼주가 “倭某某反”의 형식으로 일본의 한자음을 반절 형식을 빌려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股”는 일본 한자음으로 “古於反”으로 주음 되었는데, 당시의 일본어로 “古”는 “こ(ko)”로, “於”는 “お(o)”로 발음되므로 청탁의 차이가 있지만 “見母姥韻”인 “股”의 中古音 음가와 유사하다.⁹⁶⁾ 이는 쇼주가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일본의 언어환경을 반영하려 노력했음을 보여 준다.

2) 자의 풀이 및 예증(例證)에서의 활용

이미 앞의 논증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字鏡』은 한 표제자의 자의와 이를 증명하는 예증을 모두 『玄應音義』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다른 자·운서나 유가 경전의 주석 등을 가져와 병용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字鏡』이 『玄應音義』 석문에서 자의 풀이와 예증을 인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 인용 양상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모든 자의 및 예증을 『玄應音義』에서만 인용하는 예

우선 알아볼 것은 표제자의 자의와 이를 증명하는 예증을 모두 『玄應音義』에서 인용하는 예이다. 이때에도 인용 범위와 예증을 인용하는 방식에 따라 인용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玄應音義』의 자의나 예증의 전체 혹은 부분을 축약하거나 변형한 것이다. 이때 인용한 범위가 전체일지 일부일지, 일부라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는 각 표제자마다 다르다. 즉 음운정보, 자의, 예증, 이체자 정보 등 모든 요소를 거의 완전하게 인용하기도 하고, 각 요소를 생략하거나 축약 및 변형을 하기도 한다.

94)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502.

95)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4.

96) 陳彭年, 『廣韻·上聲·姥·古』:“股, 髀股.”(<https://ctext.org/dictionary.pl?if=gb&char=%E8%82%A1> [20201108]).

『玄應音義卷第十四·四分律·第20卷』:脰肘, **區放反** **橫舉肘也**. 未詳字出,此應俗語.『禮記』云:‘並坐不橫肱’,是也. 律文或作⁹⁷⁾ **脰**二形, 並未詳.

『新撰字鏡·肉部』:脰, **區放反** **橫舉肘也**.⁹⁸⁾

위의 예는 음운정보와 자의 등 석문의 일부만 인용하였으며, “橫舉肘”의 출처-즉, “未詳字出, 此應俗語. 『禮記』云:‘並坐不橫肱’, 是也.”-에 대한 『玄應音義』의 설명이나 이체자 관계-律文或作⁹⁷⁾ **脰**二形, 並未詳-는 생략하고 문장도 거의 변형하지 않았다.

『玄應音義卷第13·十八泥犁經·第5卷』:焯熱, **之藥反**. 『廣雅』:焯, **熱也**. 『說文』:焯, **明也**. 經文作⁹⁹⁾ **焯**, 都角反. 焯, **明也**. 焯非此義.

『新撰字鏡·火部』:焯, **之藥反** **熱也**. **明也**. 一作¹⁰⁰⁾ **焯**, **明也**.

『玄應音義卷第16·善見律』:腦胲, **古才反**. **足大指也**. 案:字義宜作解, 音胡賣反, 謂腦縫解也. 『無上依經』云:‘頂骨无胲’, 是也.

『新撰字鏡·肉部』:胲, **古才反**. **足大指**. 作解, 謂腦縫解.¹⁰¹⁾

위의 두 예는 『玄應音義』 석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다. 특히 “焯”자조는 『玄應音義』의 자의와 자형 통용 관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원문의 “經文作焯”을 “一作焯”으로 변형하여 “焯”을 “焯”으로도 씀을 밝혔는데, 비록 원문의 “경문에서 통용된다”는 의미는 약해졌지만 두 글자의 통용 관계는 충분히 설명되었다. “胲”자조 역시 『玄應音義』의 자의와 현응의 案語-“案:字義宜作解, 音胡賣反, 謂腦縫解也”-의 문장 구조를 생략 및 변형시켜 인용하였다. 그러나 “자의 상 ‘解’로 써야 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解로 쓴다”로 바뀌어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玄應音義卷第7·方等般泥洹經·上卷』:拍臚, 又作¹⁰²⁾ **臚**, 同. **扶忍反**. 『說文』:膝骨曰臚. 『三蒼』:膝蓋也.

『新撰字鏡·肉部』:臚, 亦作¹⁰³⁾ **臚**. **扶忍反**. 上. **膝骨曰臚**, 又膝蓋也.

97)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88.

98)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4.

99)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54.

100)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1.

101)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4.

102)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285.

103)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35.

위의 예는 『字鏡』이 『玄應音義』 석문의 자의와 이체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인용한 사례이다. 하지만 『說文』이나 『三蒼』 같은 인용 출처는 생략한 채 두 자서의 자의를 축약해 수록하였으며, 앞의 자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또(又)”를 쓰는 등 인용문에 약간의 변형을 가했다. “亦作𡇗”이라는 이체자 정보도 “又作𡇗”에서 변형되었다.

위의 네 가지 예를 통해서 『字鏡』이 설령 『玄應音義』 석문 내용을 거의 다 인용할 때에도 완전히 베끼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의 생략을 통한 내용 축약,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문맥에 맞는 문체 고치기”라는 인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용 출처나 생략해도 문맥을 해치지 않는 글자들은 생략하여 내용을 축약하고 나름의 문체로 원문을 변형한 것이다. 『玄應音義』를 인용한 석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字鏡』의 전반에 걸쳐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는데, “𡇗”자조의 석문과 같이 저자 자신의 한문 수양이 깊지 않아서 오류가 드러나는 예가 적지 않아서, 이 역시 인용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인용문에 대한 교감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둘째는 『玄應音義』의 한 불전의 석문에서만 인용하지 않고 『玄應音義』 내 다른 불전의 것과 결합하여 내용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충실하게 한 것이다.

『玄應音義』卷第21·大乘十輪經·卷6卷: 嬰纏, 於盈反. 嬰猶纏繞也. 『漢書』: 嬰城固守. 『音義』曰: 以城自繞者也.¹⁰⁴⁾

『玄應音義』卷第24·阿毗達磨俱舍論·卷9: 嬰兒, 於盈反. 『三蒼』: 女曰嬰, 男曰兒. 『釋名』云: 人始生曰嬰兒. 胸前曰嬰, 投之嬰前而乳養之. 故謂嬰兒也.¹⁰⁵⁾

『新撰字鏡』·目部: 嬰[嬰], 於盈反. 平. 猶纏繞也. 以城自繞者也. 又男曰嬰, 女曰兒.¹⁰⁶⁾

『字鏡』 “嬰”자조는 우선 『大乘十輪經』 “嬰纏”조의 석문에서 음운정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의 풀이 면에서는 『音義』에서 풀이한 “嬰猶纏繞也”에서 “嬰”만 생략해 조금 변형했으며 “嬰猶纏繞也”에 대한 『漢書』와 『音義』-“嬰城固守”-의 예증 중 『漢書』의 것은 생략하고 『音義』의 설명 부분-“以城自繞者也”만 그대로 인용하였다. 『大乘十輪經』의 석문만으로 부족하자, 그 뒤에 “又男曰嬰, 女曰兒”를 더 보충하였는데, 이는 『阿毗達磨俱舍論』의 “嬰兒” 조에 나오는 『三蒼』의 석문을 인용한 것이다.

(2) 『玄應音義』와 『切韻』·『玉篇』 석문의 결합

『字鏡』은 『玄應音義』의 어휘 풀이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문헌의 풀이

104)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90.

105)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767.

106)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103.

를 인용하기도 한다. 서에서도 밝힌 바처럼 『字鏡』의 표제자 선정과 석문의 저술에서 『玉篇』과 『切韻』, 『玄應音義』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주로 이 책들의 석문을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玉篇』은 대부분이 유실되어 2000여 자 정도만 남아 있고, 『切韻』 역시 『玉篇』보다 많이 남아 있긴 해도 殘卷 인지라 두 문헌 다 『字鏡』에 어떠한 모습으로 인용되었는지 전모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부분과 『字鏡』의 석문, 『玄應音義』의 석문을 교차 대조하면 이 두 문헌이 『玄應音義』와 더불어 석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예를 부분적이거나 찾아낼 수 있다. 먼저 『玄應音義』 외에 『切韻』의 석문이 더해진 예를 보겠다.

『玄應音義』卷第12·中本起經·下卷:焜煌, 胡本反, 下胡光反. 『方言』:焜, 盛也. 郭璞曰:焜煌, 盛兒也. 煌, 明也. 『蒼頡篇』:煌, 光也. 經文作輝, 字與暉同. 虛歸反. 輝, 光也. 輝非此用.¹⁰⁷⁾

『切三·上聲·混韻·胡本反』:焜, 火光.¹⁰⁸⁾

『新撰字鏡·日部』:『新撰字鏡·火部』:焜, 胡本反, 火光也, 盛也. ;煌, 胡光反. 輝也. 光也. 明也. 二合盛皂.¹⁰⁹⁾

“焜”과 “煌”은 『玄應音義』에 수록된 “焜煌”이라는 어휘를 각각 표제자로 삼아 수록한 것이다. 석문의 내용 구성도 『中本起經』과 『切韻』의 석문을 섞어서 인용하였다. 우선 두 글자의 음운정보는 “胡本反”과 “胡光反”으로 두 책이 모두 일치한다.¹¹⁰⁾ “焜”의 자의인 “盛也”와 “煌”의 자의인 “光也”와 “明也”는 『無量清淨平等覺經』에서 직접 인용하였고, “二合盛皂”는 “郭璞曰:焜煌, 盛兒也.”를 변형시켜 옮긴 것이다. 그러나 “火光也”라는 자의는 『玄應音義』에는 없는 자의로 『切韻』에서 인용하였다.

다음은 『玄應音義』와 더불어 『玉篇』의 자의가 보충된 예를 보겠다.

『玄應音義』卷第20·六度集·第6卷:訛病, 又作譌吡二形, 同. 五和反. 『詩』云:民之訛言. 箋云:訛, 偽也. 謂作偽也.¹¹¹⁾

『玉篇·言部』:譌, 吾戈反. 『尚書』:平秩南譌. 孔安國曰:“譌, 化也.” 『毛詩』:民之譌言. 箋云:譌, 偽也. 又曰:或寢或偽. 傳曰:訛, 動也. 『韓詩』:譌, 覺也. 又曰:譌言誼言也. 『爾雅』:譌, 言也. 郭璞曰:世以妖言為譌言也.¹¹²⁾

107)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428.

108) <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12]

109)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51.

110) 陸法言, 『切三·下平聲·唐韻·胡光反』:“煌, 火狀.”(<http://suzukish.s252.xrea.com/search/qieyun/index.php> [20201112]).

111)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56.

112) 顧野王, 『原本玉篇殘卷』, 中和書局, 2004. 05. p.21.

『新撰字鏡·言部』: 訛譌, 二字同. 又叱字, 同. 五和反. 平. 別也. 勳[動]也. 覺也. 偽也. 謂詐偽也. 言也. 化也. 志波事.¹¹³⁾

『字鏡』“訛譌”조는 『玄應音義』의 『六度集』에서 이체자 정보와 음운정보, “偽也, 謂作偽也”라는 자의 정보를 인용하였고, 『玉篇』에서 “動也”·“覺也”·“言也”·“化也”의 네 자의를 더 보충하였다.

『玄應音義卷第17·出曜論·第8卷』: 譏蚩, 居衣反. 『廣雅』: 譏, 諫也. 『說文』: 譏, 誹也. 下充之反. 『廣雅』: 蚩, 輕也. 『蒼頡篇』: 蚩, 相輕侮也. 諫音刺.

『玄應音義卷第8·維摩詰所說經·上卷』: 不譏, 居衣反. 『廣雅』: 譏, 刺也. 譏, 問也. 『說文』: 譏, 誹也.¹¹⁴⁾

『玉篇·言部』: 譏, 居依反. 公羊傳: 何譏尔. 何休曰: 譏, 猶譴也.¹¹⁵⁾

『新撰字鏡·言部』: 譏, 居希反. 平. 諫也. 誹也. 刺也. 問[問]也. 譴也. 呵也. 呶也. 責也.¹¹⁶⁾

『字鏡』“譏”자조 역시 『玄應音義』와 『玉篇』의 석문을 결합한 예이다. “諫也”와 “誹也”는 『出曜論』에서, “刺也”와 “問也”는 『維摩詰所說經』에서, “譴也”는 『玉篇』의 “猶譴也”를 약간 변형하여 인용하였으며, 뒤에 나오는 “呵也”와 “責也”는 “譴”의 자의이다. 『字鏡』은 표제자의 자의 및 예증 외에 석문중에 나오는 자의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같이 싣기도 한다. 이 역시 『字鏡』 체례의 문제점인데, 표제자의 자의 및 예증과 별다른 표시나 구분이 없어서 혼동되기 쉽다.

4. 나가기

본 논문은 『字鏡』이 표제자를 선정하고 음운정보·자의 및 예증·이체자 정보 같은 석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玄應音義』를 인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 인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玄應音義』계 표제자의 『玄應音義』인용 양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의 연구 통계에 따르면 『字鏡』의 7.8% 정도의 표제자는 『玄應音義』에서 인용되었다. 『玄應音義』의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를 일부만 표제자로 선정하기

113)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173.

114)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584, p.291.

115) 顧野王, 『原本玉篇殘卷』, 中和書局, 2004.05, p.14

116)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p.173-174.

도 하지만 어휘 전체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

둘째, 석문 내용의 구성면에서, 자음은 『玄應音義』에서 인용한 표제자라면 『玄應音義』의 음운정보를 우선 채택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자·운서의 음운정보로 교체하거나, 『玄應音義』의 음운정보에 다른 음운정보-심지어 일본어 한자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반절-를 더해 보충하기도 한다.

셋째, 석문 구성면에서 자의 및 예증은 『玄應音義』에서만 인용하기도 하지만, 『玉篇』과 『切韻』 등 다른 자서 및 운서의 석문이나 유가 경전의 주석에서 인용하기도 했으므로 생각보다 다원적이다.

『字鏡』은 자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잔권만 남은 『玉篇』과 『切韻』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原本玉篇』과 『切韻』을 연구하는 문헌학 연구자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字鏡』을 통하면 『玉篇』과 『切韻』의 유실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字鏡』은 문헌을 인용할 때 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문헌 인용 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다. 이것이 『字鏡』 문헌 인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향후 『玉篇』·『切韻』을 비롯한 『字鏡』 저술 저본과의 문헌 인용 관계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字鏡』 석문 곳곳에서 인용 오류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류는 대부분 쇼주가 『玄應音義』의 원문을 생략·축약·변형하면서 범한 실수인데, 대표적인 오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하나의 한자어로 된 자의를 잘못 갈라 각각 자의로 삼고 있다. 『新撰字鏡·肉部』의 “胄醕, 治右. 去. 從[後]也. 緒也. 胤也. 連也. 續也. 与呂比.”¹¹⁷⁾를 원문인 『念佛三昧經』의 “胄胤”¹¹⁸⁾조와 비교해 보면 “連也. 續也”는 사실 “連續也”를 잘못 갈라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3장 제2절의 “焯”·“胲”의 인용 양상에서도 보았듯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원문을 변형할 때도 유창한 한문으로 옮기지 못해 그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쇼주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셋째, 『玄應音義』의 오류를 판별하지 못해 새로운 오류를 낳는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法句經』 “訥訥”조의 석문에서는 『설문』의 풀이를 인용하며, “訥, 訥難也”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사실 『설문』의 정확한 석문은 “訥, 言難也”¹¹⁹⁾로, 『玄應音義』에서

117)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27.

118) 『玄應音義卷第7·念佛三昧經·第一卷』: “胄胤, 治又反, 下翼刃反. 胄, 後也. 胤, 繼也. 子孫相承繼也. 應劭曰: 胄, 緒也. 胤也. 連續也. 字從八. 八引長之也, 云象世繼相重也.”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266).

119) 許慎, 『說文解字·言部』: “訥, 言難也. 从言从內.” (<http://www.zdic.net/hans/%E8%A8%92> [20201120]).

인용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쇼주는 이 오류를 판별하지 못하고 “訥, 訥難也”를 근거로 “訥, 訥 두 글자가 합쳐져 ‘難也’라는 의미를 뜻한다(二合難也)”라고 서술해 버렸다.

『玄應音義卷第20·法句經·下卷』:訥訥, 奴骨反. 『論語』:君子欲訥於言. 苞氏曰:訥, 遲鈍也. 『說文』:訥, 訥難也. 訥音而振反.¹²⁰⁾

『新撰字鏡·言部』:訥訥[訥], 上, 奴骨反. 入. 遲鈍. 下, 而振反. 二合難也.¹²¹⁾

넷째, 체제가 엄정하지 못하다. 2장 제2절 “胆”자조의 인용 양상에서 보았듯이 “謂胆妬也”에서 표제자와 같은 글자 “胆”를 생략해 “謂妬也”로 줄여 쓰면서 중문부호를 맘대로 생략하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석문중에 나온 특정 자의의 동의자나 유의자를 아무런 표시 없이 수록하여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字鏡』이 가지고 있는 한자학·문헌학 가치는 상술한 오류들 때문에 가려지고 제대로 쓰임새를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字鏡』 전서에 걸친 광범위한 문헌 인용 관계 연구를 통해 『玄應音義』 뿐만 아니라 다른 저본과의 인용 관계 및 인용 양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字鏡』의 석문을 정확하게 교감하여 오류를 바로잡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학술 가치와 효용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0) 玄應 撰,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 공유본, p.667.

121) 昌住, 『天治本新撰字鏡』, 臨川書店, 平成11年, p.173.

【참고문헌】

顧野王, 『原本玉篇殘卷』, 中和書局, 2004.05, p.14, 21, 96.

顧野王, 『宋本玉篇』, 北京市中國書店, 1983, p.55, 83, 372.

昌 住 撰,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 『天治本新撰字鏡(增訂本)』, 京都: 臨川書店, 平成11年, p.25, 27, 34, 32, 43, 51-52, 64-65, 101, 103, 173-174, 235-236, 242, 266, 338, 341, 464, 481, 554, 569.

玄 應, 徐時儀 校注, 『大唐眾經音義』, “TLS-漢學文典”(http://tls.uni-hd.de/xuanying.html) 공
유자료, p.57, 86, 137-138, 159, 229, 243, 266, 272, 285, 287, 291, 295, 354, 408-409, 4
28, 431, 439-440, 454, 488, 498, 502, 531, 570, 584, 601, 629, 632, 656, 659, 673, 676,
690, 696, 707, 714, 733, 767, 770.

國學大師古典圖書集成, www.guoxuedashi.com

北海道大學, 平安時代漢字字書綜合データベース, http://hdid.jp.

鈴木慎吾(大阪大学 言語文化研究科), 篇韻データベース, http://suzukish.s252.xrea.com.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

漢典, https://www.zdic.net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新撰字鏡』, 『玄應音義』, 日本字書, 引用研究, 引用釋例					
	영문	Shinsenjikyo, Xuanyingyinyi, Japanese Dictionary, Citation Study, an Example of a Citation Analysis					
<div>A Citation Study of Shinsenjikyo : Focusing on Xuanyingyinyi</div> <div>Kim, Lyong-Kyoung · Wu, Yi-Ming(CHINA)</div> <p>Shinsenjikyo is an important ancient Japanese dictionary completed by Shoju during the Heian period. The book was originally compiled by Xuanyingyinyi, Yupian, Qieyun, Ganluzishu and other literatures, which cited title words, phonographs, meanings, and examples.</p> <p>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 of quoting the literature of Shinsenjikyo, especially with the focus on Xuanyingyinyi. Shinsenjikyo uses Xuanyingyinyi in a wide range of content structures, including selecting the title words, quoting the sound, meaning, example, and variant characters of the title words. Sometimes with Xuanyingyinyi alone, sometimes using information from other literatures, such as Yupian and Qieyun, to make up for Xuanyingyinyi's deficiencies, thereby enhancing its value and utility as a dictionary.</p> <p>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book are that the literature citation relationship is not clear, because it does not reveal the source of the citation, and that there are many errors due to the lack of strict format.</p> <p>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the value of this book as a dictionary through extensive and accurate research of literature citation relation and meticulous calibration.</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령경 / 金玲敬 / Kim, Lyong-Kyoung			오일명 / 吳一鳴 / Wu, Yi-Ming		
	소 속	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文新學院			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文新學院		
	Em@il	jadeling72@163.com			w1ming@foxmail.co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15	